

이

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와중에서 나온 말 중에서 신토불이(身土不二)만큼 의미있게 우리 마음속을 파고 든 것도 드물성 싶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즉 몸과 흙은 본시 하나이니 제 땅에서 나는 음식이 우리 체질에 가장 알맞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身土不二를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처음 주창한 사람은 한호선의원(자민련, 前 농협중앙회장)이다.

한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시절 느닷없이 身土不二를 들고 나왔을 때 농협의 임원, 간부직원들도 그 뜻을 몰라 당황해 했다고 한다.

89년 서대문 농협중앙회 건물에 큼지막 하게 '쌀시장 개방 반대'와 함께 '身土不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을 때만해도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전화가 농협과 필자가 근무하는 신문사에 많이 걸려왔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기가막힌 뜻을 가진 身土不二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듯 하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

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 어원(語源)이 불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몸과 흙은 본래 두가지 모습이 아니다

전남 광주에서 은거하고 있는 이을호 박사(환경단체인 광록회 회장, 前 전남대 총장)는 신토불이의 어원을 법화경(法華經)에서 찾고 있다.

법화경의 십종불이문(十種不二門)중 의정불이문(依正不二門)이 곧 신토불이라는 것이다.

이박사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의정(依正), 이는 의와正的 이보(二報)가 된다. 중생이 의지하는 국토(國土)와 자구(資具)를 의보(依報)라 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심신(心身)을 정보(正報)라 한다.

여기서 의보(依報)로서의 국토는 곧 토(土)요, 정보(正報)로서의 심신은 곧 신(身)이니 신토불이문(身土不二門)은 바로 의정불이문(依正不二門)과 같은 명칭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

한국 불교연구원장 이기영 박사는 신토불이란 자구를 불경속에서 찾는데 얽매이기보다는 그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신(身)은 불신(佛身)의 준말. 토(土)는 불국토(佛國土)의 준말로 보면 된다는 것.

이원장의 설명을 좀더 옮겨보면 "화엄경(華嚴經)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것 즉 지구를 포함한 우주 대자연 그 전체가 불(佛)이요, 佛의 몸인 佛身이요, 佛의 국토인

편집위원 칼럼

身土不二



“농정의 뜨거운 감자는 쌀!”

쌀자급 하자며 농약은 덜 쓰자고...

佛國土라고 가르친다. 이는 우주안의 모든것이 다 부처님의 몸이요, 그 나라임을 뜻한다. ...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몸과 그 나라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

알듯 모를듯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해될 듯하다.

“身(몸)과 土(흙)는 둘이 아니다. 土는 근거요, 身은 그 근거위에 나타난 양상이다. 身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이며 土는 우리를 낳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우주 대자연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되돌아 갈 고향 땅이다.”

결국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을 의지하여 살다 흙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 그러니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나온 음식물이 자기 체질과 가장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같은 설명들은 身土不二의 뜻이 불경의 깊은 뜻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는 이해 될 수 있어도 그 어원이 바로 이것이다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 身土不二의 어원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왜색조어(倭色造語)라는 의혹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농협이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身土不二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지 7년만인 올해 농협은 이같은 시비를 일축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농협이 찾아낸 문헌은 1443년 박윤덕이 쓴 「향약집성방」과 허준의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서문에 “기후 풍토와 생활 풍습은 같다”

는 말과 「동의보감」 ‘내 정의형’ 편에 나오는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아서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는 고향의 흙냄새가 가장 좋다”는 구절을 찾아내곤 꽤나 좋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身土不二의 어원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14세기초 중국 원나라 성종때 보도법사가 지은 계송(偈頌)이다. 그래서 이를 어원으로 삼고 있다.

身土本來無二相(몸과 흙은 본래 두가지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身土不二란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그 정신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이 身土不二도 우리땅에서 나는 먹거리가 넉넉할 때 이야기지 부족할 땐 의미가 반감된다.

身土不二 = 먹거리 자급 = 농약의 조화 필요

지금 농정의 뜨거운 감자는 쌀이다.

휴경논에까지 벼심기를 벌이고도 나라 공간이 비어 농정당국의 고민이 여간 아닌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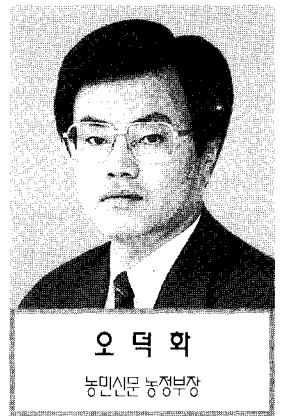
농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식용 쌀 수입을 13년만에 재개할 정도니 그 다급함을 알만하다. 그래서 올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쌀자급 기반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모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도 쌀 생산에 결정적 요소인 병해충방제는 과거 녹색혁명, 주곡자급을 달성했을 때와는 감이 영 딴판이다. 농림부마저 식물병역과를 없애고 환경농업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쌀자급을 하자면서 농약은 덜 쓰자고 한다.

사회전반에 농약에 대한 필요이상의 알레르기 현상이 身土不二 이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身土不二와 먹거리의 자급, 농약의 함수관계를 조화롭게 풀 지혜가 필요한 때인듯 싶다. **농약정보**



오 덕 화
농민신문 농정부장

